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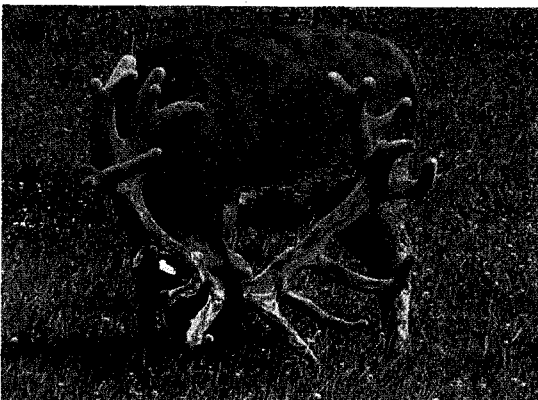
시슴나리 녹용이야기

백성식/캐나다 캘거리

녹용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한방서중의 하나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처음으로 기록을 시작으로 수천년 전부터 인삼과 함께 한방의 고귀약 중에 쌍벽을 이루는 약물로서 한국이나 중국의 약장에 「삼용(參茸)」이라는 두 글자가 꼭 있는 보약의 대표적인 물질로 여겨져 왔다.

사슴은 땅위에 걸어 다니는 네발 달린 짐승 중 유일하게 십장생(十長生)에 선정될 정도로 과거부터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는데 옛 문헌을 잠깐 보면 「포박자(浦朴子)」에는 「사슴의 수명은 일천년인데, 오백세가 되면 그 색이 희게 된다」며 좀 과장스럽게 신비로운 짐승으로 여겨왔다.

현대에 이르러 수많은 정보와 산업생산의 증가에 힘입어 거의 집한채 값과 맞먹던 녹용도 과거에 비해 값도 대단히 저렴해 졌으나 이에 비례해 전에 없던 부작용 또한 많이 나타나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면을 통해 사슴과 녹용의 일반상식을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교민 여러분이 좀더 녹용을 쉽고 정확하게 고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야기를 풀어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슴은 계절번식을 하는 동물이다. 녹용이라고 해서 일년 내내 자라는게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녹용은 사슴의 품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이곳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3월 중순에 사슴머리에 있는 육경(肉莖)이라는 녹용이 자라는 부위에서 새싹이 돌듯이 자라 올라가기 시작해 약 90일 정도면 그 성장을 멈추는데 만 5년생 이상의 엘크 성록과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1m20cm까지 자라기도 한다.

이는 한참 녹용이 자라는 4~5월에는 하루에 거의 2~3cm정도를 매일 자라게 되는 것인데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 조직도 이보다 빨리 자라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세포분열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업용으로 쓰는 녹용은 품종과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나 만 5년생 이상의 성록의 경우 통상 육경에서 녹용이 자라 올라가기 시작한 후 70일을 전후해서 절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키우게 되면 녹용의 무게는 많아지나 약재로서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게 되고 또 그보다 너무 일찍 절각을 하게 되면 상업성을 현격히 상실하게 되어 가장 일반적인 절각 일수가 70일 정도 되게 되는 것이다.

녹용으로 절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방치하면 캐나다의 경우 9월경을 전후하여 녹용으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며 녹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번식기가 시작이 된다. 머리에 달려있는 녹각을 이용하여 수놈들간에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강도가 싸우다 죽는 사슴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싸움에서 이긴 승자만이 그 해 그 무리의 암컷을 모두 차지하기 때문이다. 보통 야생 상태에서는 적게는 20~30마리, 많게는 80마리의 한놈의 수컷이 거느린다는 보고까지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번식능력을 가진 짐승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목장에서는 종특이 약 15마리 전후의 암컷을 거느리도록 조치하는데 이는 수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야생의 사슴세계에서 싸움에 이긴 사슴은 겨우 내내 식음을 전폐하고 암놈 지키기에만 몰두하는데 암사슴 가운데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다른 숫컷과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시 봄이 오게되면 이곳 캐나다같은 경우는 2월말에서 3월초에 걸쳐 커다란 녹각을 벗어 던지고 다시 새로운 녹용이 자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는 숫사슴이 죽는 그해까지 매년 반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슴에서 제때에 절각한 녹용을 건조해서 약재로 쓰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녹용 소비시장은 바로 한국이다.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녹용의 80%가 한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

먼저 지구상에는 39종의 사슴이 있는데 이를 모두 녹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규정한 생약규격집 내용에 의하면 3종류의 사슴에서 나오는 뿔만이 녹용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소뿔, 양뿔과 같은 그냥 사슴뿔일 뿐인 것이다.

그 3종류는 첫째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많은 꽃사슴(梅花鹿, Cervus nippon, Sika deer)과 뉴질랜드나 유럽쪽에 많은

적록(赤鹿, Cervus elaphus, Red deer), 또 이곳 북미와 일부 중앙아시아쪽에 있는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 Elk deer)이다.

이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부 업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녹용 아닌 녹용을 유통시키고 그것을 녹용으로 알고 복용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인데 캐나다 최북단 쪽에는 수많은 순록(馴鹿, Rangifer Tarandus, Rein deer)들이 서식하는데 이 품종에서 나오는 뿔이 항상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짜 녹용의 세포와 형태가 매우 흡사해 어지간한 전문가들도 일단 절편해 놓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북미지역에서 녹용을 구입하는 경우 순록뿔인지 아닌지는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해 보아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세계 최대의 소비처인 한국에서의 녹용 시장도 경동시장의 녹용파트에 캐나다산 엘크 녹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정도로 왜곡이 심한게 현실이다.

다시 말해 캐나다에서 생산된 수많은 엘크 녹용이 한국에 가서는 최고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시베리아산 원용(元茸)으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쉽게 말하면 전국의 쌀가게마다 이천쌀이 넘쳐나는 웃지 못할 현실과 똑같은 것이라 보면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녹용시장 현실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좋은 녹용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다음 몇가지 정도의 요령만 있어도 훨씬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먼저 녹용을 고를 때는 한국에서 녹용으



로 인정하는 3종류의 사슴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녹용의 조직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다.

먼저 녹용은 제일 위부터 분골,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을 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시 말해 머리와 가까울수록 그 조직이 엉성하다. 역으로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색상이 고루 퍼져있는 것이 좋은 부분으로 알면 될 것이다. 또한 가능한 추운 지방에서 나온 녹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선택 요령이 될 것이다. 한국의 한약시장에서 시베리아산 원용을 최고의 녹용으로 치는 이유는 녹용 안에 혈(血) 성분이 따뜻한 지방에서 생산된 녹용의 그것보다 월등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녹용이 처음 자라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의 기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캐나다 사슴들의 녹용이 처음 자라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인 3월의 캐나다 지역 날씨에서 조직이 연한 녹용을 얻리지 않고 자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선 더운 지방의 사슴보다 두배 이상의 혈액을 공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녹용안에 혈(血)성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따뜻한 지역에서 생산된 녹용보다 좋은 녹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녹용 상식들이 있어 이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먼저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열이 심할때나 소화불량시에는 복용을 금해야 하고 녹용이 매우 귀했던 옛날에 녹용을 먹을 정도면 귀한 집 자식이었을텐데 좋다고 녹용을 용량에

맞지 않게 함부로 먹여 그 부작용을 보고 이러한 속설들이 도는게 아닌가 한다.

또 녹용을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경우 죽을 때 고생한다라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녹용을 사람의 몸을 보해 신체의 저항력과 활력을 증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복용한 녹용으로 입종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다. 어떤분들은 여름에 녹용을 먹으면 땀으로 영양성분이 빠져나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녹용은 여름에 기운이 허할 때 먹어 두어야 가을에 식욕이 돌고 겨울철 감기에도 견딜 수 있다. 여름에 한국에서 보신탄을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겠다.

마지막으로 녹용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여겨 젊은 여성분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학계 실험에 의하면 녹용 자체 성분으로 인해 살이 찌는 경우는 결코 없고 녹용 복용후 식욕증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음식을 섭취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녹용을 먹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리는 이의 정성이 아닌가 싶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성이 녹용을 다릴 때 묻어나면 그 녹용의 효과는 백배, 천배 더하리라 생각된다. **한글양륙**

※ 이 글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녹용 건조 사업을 실시중인 백성식씨가 격월간 '캘거리 한인회보'에 게재한 내용입니다.